

(가) 화재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는 장소

- 작업현장에서 반경 10m이내에 다량의 인화성 물질이 있을 때
- 작업현장에서 반경 10m이내에 위치한 벽 또는 바닥 개구부를 통하여 인접지역의 인화성 물질에 발화될 수 있을 때
- 인화성 물질이 금속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하여 열전도 또는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수 있을 때
- 인화성 물질이 작업현장에서 반경 10m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티에 의해 쉽게 발화될 수 있을 때
-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
-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나) 화재감시인의 임무

- 화재감시인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 화재감시인은 주위 인근의 소화설비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 화재감시인은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화재감시인은 용접·용단 작업이 끝난 후에도 30분이상 계속하여 화재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화기작업을 실시하는 기능공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는 물질특성과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경고·주의” 표지판과 라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물질 경고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우레탄과 같은 단열재가 설치된 후에는 즉시 석고보드 등과 같은 방화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화판이 설치될 때까지 근로자들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작업을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만약 방화판이 설치되기 전에 근로자들이 위험지역에서 작업을 한다면 화재감시자를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

(6) 인화성 물질 취급 등과 같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는 비상 대피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정전이 되더라도 작동되는 경보설비와 외부와의 연락장치, 유도등, 비상조명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